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요셉의 창고 7월 기도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םרם 헤렘 전쟁의 이유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는지의 이야기로 땅 정복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와 관련하여 첫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이후가 바로 땅과 관련된 첫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네 자손은 사 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가나안 땅을 아브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데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16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민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다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수 있는 당위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거민의 죄악이 가득찰 때 비로소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 거민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로 [םרם 헤렘]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여리고를 정복한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헤렘 전쟁을 요구하셨을까요? 헤렘 전쟁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진멸 당 할 수 밖에 없었던 죄악은 무엇이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의 풍속과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 거민들이 행한 죄악은 레위기 18장 6절 이하에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 성적 범죄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 뿐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땅도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레 18:24, 25)

하나님께서 너희도(이스라엘)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천사의 (군대장관) 방문을 받습니다. 그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수 5:15)

이 말씀은 전쟁을 앞 둔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네가 밟고 있는 땅이 어떠한 땅인지 분명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범죄하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는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 죄악들은 드러나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애, 탐욕, 시기, 질투, 음란이 마치 문화적 트렌드가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결심 정도로는 거대한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는 거룩을 연습해야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 22:10, 11)

그래서 우리 모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소식 및 기도제목

1. 저희가 있는 갈멜산-므깃도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북쪽은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제국들의 주요 루트가 되었던 곳이며 오늘날에도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 위협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한편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핵 문제 등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치열한 영적전쟁과 므깃도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 등 이 지역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의 복음 전파와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저희 가정을 이 곳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이웃들과도 접촉점들을 늘리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 매일의 삶에서 치뤄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도록
2. 저희 가정은 이번 여름에 약 한 달 반 정도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항상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